

해외의약뉴스

가정에서 사용하는 살충제 스프레이의 어린이암 유발 가능성

개요

과거 연구들을 분석한 새로운 연구에서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살충 분무기 또는 스프레이에 노출될 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불필요한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키워드

가정, 어린이, 살충제 스프레이, 암

과거 연구들을 분석한 새로운 연구에서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살충 분무기 또는 스프레이에 노출될 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불필요한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연구팀¹⁾은 과거 연구로부터 살충제와 어린이 암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거에 연구된 초기 논문들을 고찰한 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277편의 연구를 확인하였고, 이 중 16편의 논문들이 더욱 면밀히 연구되었다. 소아과저널에 게재한 연구의 저자는 연구된 논문의 수는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실내에서 살충제의 노출은 비록 중량은 아니지만 소아암의 증가와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위험은 급성 백혈병과 소아 림프종이다.

Wbur's Common Health²⁾에 따르면, 아이들이 가정에서 최악의 노출은 분무기 또는 스프레이 캔으로부터의 살충제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가정에서의 사용은 근접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외부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비하여 살충제가 적게 희석되기 때문이다.

살충제는 모든 가정 주변에서 발견된다.

농약을 친 식품, 스프레이 살충제, 설치류 차단용품, 애완동물과 잔디용품 등이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집, 정원, 아이들의 놀이장소에서 독성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분무기식 살충제와 광범위한 스프레이 살충제는 피해야만 한다.

Lu 교수는 아이들의 간(liver)은 완전히 발달되지 않아서 살충제를 해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충제의 노출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가정에서 살충제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 환경 보호청(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는 또 다른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실내에서 살충제를 사용하되, 사용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공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농약이 포함할 수 있으므로 라벨에 적힌 최소한의 시간 동안은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살충제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속효의 해결책이다.

1) 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in Boston, MA,

2) senior author of the paper Chensheng Lu, PhD, of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at 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저자는 실내 주거공간에서의 살충제 노출과 어린이 암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원문정보 ■

<http://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299513.php>